

영어 다독협회에서 제공하는

영어 다독을 위한 가이드북



영어다독(Extensive Reading)이란 무엇인가?

흔히 다독이라 함은, 독자가 읽기 속도와 유창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쉽고 재미있는 책들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독은 언어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하는 것 보다는 기술적인 면에서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다독을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다독은 재미있는 책들을 빠르게 읽이 내려가며,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사전의 도움 없이 문맥을 통해 이해하고
다양한 소재를 다뤄가면서 통찰력을 키워
독해 능력을 향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는데 문제없이 빠르게 읽기 위해서 (단, 초급자 수준에서 적어도 분당 150~200개 이하의 단어를 읽는다고 가정해 볼 때) 읽기 내용은 반드시 쉬워야 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독자의 눈은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지고 이는 이해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읽기가 아닌 정형화된 학습의 형태로 바뀌어 영어다독의 의미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다독은 수준별 도서(Graded Readers)를 가지고 묵독(Sustained Silent Reading)하는 읽기 활동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영어다독(Extensive Reading)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영어다독이 왜 언어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열한 것입니다.

1. 자연스러운 문맥에서 만나는 언어를 통해 교과서 내용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언어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2. 어휘력이 향상됩니다. 다독은 수천 개의 단어와 어휘의 형태들을 자주 반복해서 접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다음에 나올 어휘와 문법을 예측하고 숙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속독 능력과 이해력이 증진됩니다. 빠르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언어를 처리하게 해 읽는 동시에 다른 것들을 위한 생각의 공간을 갖게 합니다.
4. 자신감, 동기, 읽는 즐거움은 학생들을 좀 더 효율적인 언어 사용자로 만들어 학습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줄여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5.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영어를 많이 듣고 읽는 과정은 바람직한 학습 습관을 만들어 줍니다.
6. 문맥에서 나타나는 문법에 대한 감각을 키워줍니다.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법은 그 용례가 다양하지 못하지만 영어다독은 다양한 상황과 문맥에 문법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 패턴을 익히고 깊은 이해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어다독협회(The Extensive Reading Foundation)

영어다독협회(ERF)는 영어다독(ER)을 지지하고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둔 비영리 단체입니다. 우리의 주된 연례 업무는 매년 최고의 수준별 도서(Graded Readers)를 뽑는 언어학습자 문학상(Language Learner Literature Award)과 영어다독(ER)에 대한 연구물들을 집적하여 문헌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협회는 읽기 자료와 도서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기금 조성을 통해 교육기관들이 영어다독(ER)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다독협회(ERF)는 다독을 장려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무료이며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erfoundation.org; www.keera.or.kr).

다독(Extensive Reading)과 정독(Intensive Reading)

‘읽기를 위한 학습’과 ‘학습을 위한 읽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효과가 있지만 그 목표는 분명 다르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에 목표를 두고 읽기(Intensive Reading)’를 하게 되면 새로운 단어나 문법 등 언어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이 담긴 텍스트를 읽게 됩니다. 이는 “읽기 학습”이라 불리며 보통 교과서에서 다루는 전형적인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읽기에서 나타나는 단락은 길이가 짧고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휘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읽기 전후에 다루는 활동들과 이해도 퀴즈 등이 동반됩니다. 정독(Intensive Reading)의 목적은 언어 학습이나 읽기 기술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본문의 주제를 찾거나 시제 학습,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학생들이 ‘읽기 자체를 위한 학습(Extensive Reading)’을 할 때는 정보를 처리하는 읽기에 의해 읽기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학습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단순히 즐기기 위해 이야기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읽기의 목표는 반드시 새로운 내용을 익혀야 한다는 강박적인 의식을 배제한, 읽기의 유창성 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어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적 상황을 위한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이 다독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는 언어를 보다 빠르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학생들은 읽기 자체를 통해 언어 능력과 전략을 익히며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독(Extensive Reading)은 읽기 속도와 전반적인 유창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속독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읽기 방법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독은 새로운 언어 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다독은 학생들로 하여금 배운 내용을 연습하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전자를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필기시험 공부를 하는 경우로 본다면, 후자는 도로 주행을 연습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컨대 두 과정 모두 필수적인 과정이며 다독은 수준별 도서를 읽는 것이 보편적인 접근방식입니다.

수준별 도서(Graded Readers)란?

수준별 도서(Graded Readers)는 장르를 망라하고 영어 학습자의 읽기 속도와 유창성을 향상시키며 즐기는 마음으로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읽기 교재입니다. 수준별 도서라 불리는 이유는 각 도서들이 교육학적 체계에 맞추어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 엄격하게 통제된 구성, 어휘와 문법 및 신중하게 선택된 이미지들과 함께 난이도 별로 분류되어 쓰였기 때문입니다. 원서에서 등장하는 많은 어휘들은 전체를 통틀어 한두 번 정도 밖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수준별 도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은 낮은 빈도의 어휘는 과감히 없애고 대신 자주 나오는 유용한 어휘들을 반복해서 사용해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준별 도서(Graded Readers)의 Graded라는 어휘는 학교에서 쓰이는 학년(Grade)이라는 용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준별 도서의 시리즈는 대개 6-8개의 단계(입문부터 고급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수 십 권의 도서들이 있으며 같은 단계의 책들은 난이도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입문자 수준의 도서는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을 반복사용하며 가장 단순한 문법을 사용해 영어학습의 초기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급 단계의 도서들은 입문 단계보다는 다소 어려운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고 삽화는 줄어들며 구성도 복잡해지는데 이는 초급 단계의 교과서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급 단계와 고급단계부터는 물론 더 어려워지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준별 도서는 기존에 배웠던 언어지식과 기술을 다지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현재 수 십 개의 출판사들이 많은 양의 수준별 도서를 출판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별 도서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학회 홈페이지(www.erfoudation.org; www.keera.or.kr)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준별 도서(Graded Readers)의 장점은 무엇일까?

1.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언어를 제공해 준다.
2. 단계별로 영어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준다.
3. 흥미로운 읽기 자료를 통해 학습동기를 자극한다.
4. 최종적으로는 원서를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언어 기초와 토대를 만들어 준다.

다독의 종류

대부분의 다독 과정에서 학생들은 본인이 본인에게 맞는 단계의 책을 직접 고르게 하는데 이는 모든 학생들이 각기 다른 책을 자신만의 공간에서 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적 읽기 또는 개인적 읽기로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읽기 과정은 묵독(Sustained Silent Reading)이나 DEAR(Drop Everything and Rea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도서관에서 스스로 책을 고르고(필요한 경우 학생들이 적절한 수준의 책을 적절한 속도로 읽는지 확인하는 선생님의 도움과 함께) 교실이나 집에서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은 같은 도서를 교실에서 챕터별로 함께 읽거나 숙제로 읽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다독을 할 때 교사는 일반적으로 읽기 전에 주요 단어를 알려주면서 학습활동을 진행합니다. 읽은 후에는 이해도 문제나 토론과정 또는 다른 활동들이 수반됩니다.

다독은 학생들이 사전 없이도 내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유지하면서 속독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읽기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 읽기가 너무 오래 지연되거나 사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독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읽기 단계

다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계의 책을 선별해 읽어야 하는데, 적절한 속도(입문 단계의 경우 분당 150-200개 정도의 단어를 읽는 속도)로 읽기를 연습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장당 98%의 어휘를 알고 있는 경우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며 빠르게 읽을 수 있고 90% 이하의 경우는 읽기가 좌절의 경험이며 사전을 필요성을 절감하며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90%에서 98%사이의 단계에서는 학습의 의미를 가진 읽기가 이뤄질 수 있고 이러한 수준에서는 적절하게 이해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의 이해를 위해 사전을 찾아보는 것도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98%이상 어휘를 알고 있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라면 읽기 과정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다독을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만일 한 페이지의 모든 단어 또는 거의 모든 단어를 알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속독 능력과 읽기 자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독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사들은 교재의 난이도와 읽기 목적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면 학습의 의미를 지닌 읽기를, 읽기 속도와 이해도를 개선하고 싶다면 다독을 지도해야 합니다. 주어진 글이 학습을 위한 것인지 다독을 위한 것인지는 학생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준의 독서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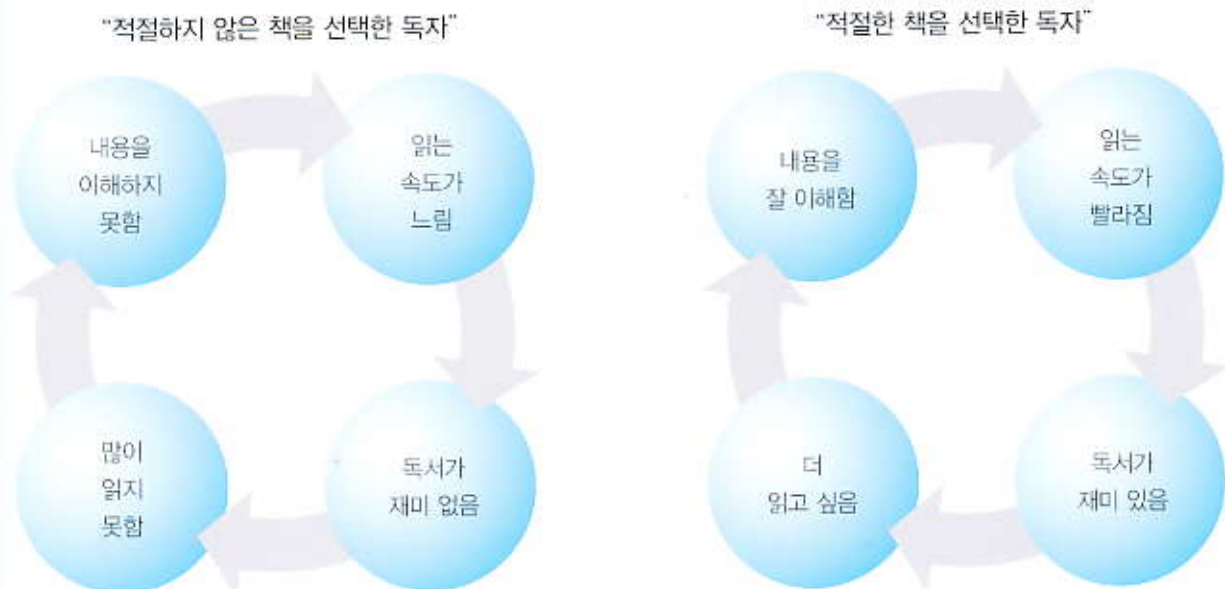
때문에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글이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쉬울 수 있습니다.

원서의 사용

원서란 원어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읽기 자료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원서는 외국어 학습자가 읽기에는 최고의 수업자료가 아닙니다. 이미 수 천 개의 어휘와 영어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 원어민 아동 또는 청소년을 위해 제작된 읽기 교재가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매우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문제없이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수준별 도서(Graded Readers)를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바른 도서 선택

수준에 맞는 도서를 선택하면 자신감과 읽기 능력이 배가되며 평생을 가지고 갈 독서에 대한 흥미를 키워줄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도 있게 됩니다. 반대로 수준에 맞지 않는 도서를 선택하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만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빠르고 즐겁게 온전히 내용을 이해해 가면서 독서할 수 있는 편안한 수준의 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본인들만이 스스로의 수준을 판단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도서를 선택하는 것도 학생들 자신들의 몫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태도로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이 때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가장 적당한 책을 선택하도록 조언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들 스스로도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접하게 될 책을 많이 읽어 봐야 합니다.

※ 책 선정 시 유의할 점

1. 책 제목이나 표지 및 그림만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내용을 조금이라도 읽어 봐야 한다.
2.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을 골라라. 책이 너무 재미없거나 어렵다면 도중에 읽기를 중단해도 무방하다.
3. 분당 150-200개 정도의 단어를 읽을 수 있는 속도의 책을 골라라.
4. 사전의 도움이 없이 읽을 수 있는 도서를 골라야 한다.
5. 책 내용을 거의 100%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독 프로그램의 계획과 설립

다독 프로그램의 시행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작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철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독 프로그램은 분명한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학생들이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신념을 조직화 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다독 프로그램은 읽기 자료들의 분실이나 부족과

용두사미식의 식어가는 관심으로부터도 살아남아서 시작한 목적의식과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다독 프로그램의 요건

1. 학생,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학습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 참여한다.
2.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나 교과 시간표의 일부에 다독을 포함시킨다.
3. 프로그램 설립과 유지 과정에 학생들을 포함시킨다.
4. 새로운 교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5.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재는 많을수록 좋다.
6. 도서 대출 및 반납, 대출 기한, 대이 기록 등의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7. 분명한 학습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8. 읽기를 평가할 방법을 가져야 한다.

1단계 : 도서관을 계획하라! - “크게 보되 시작은 작은 것부터”

‘크게 보되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하라는 말의 의미는 다독 프로그램의 정립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매년 점진적인 성장이 보다 의미가 있는 일이며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 학생들은 얼마만큼의 도서를 읽어야 하는가? 적절한 빈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 수업시간에 다독 프로그램을 배정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언제, 얼마만큼 인가?
- 다양한 수준과 흥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책들이 필요한가?
- 현존하는 수업에 다독 프로그램을 병합해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수업을 개설해야 하는가?
- 책은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도서관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 학생들은 언제, 얼마나 자주 책을 바꿔가며 읽어야 하는가?
-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것인가?
- 이러한 과정을 위한 기금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 이 프로그램의 총 책임자는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실 안팎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교사들은 수업시간의 일부를 할애해 학생들 스스로 묵독하게 하고 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일 수업시간이 충분히 하지 않다면 집에서 읽게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책을 바꿔야 할 상황에서는 수업시간에 교사가 지도해 주는 것이 좋고, 도서관에서 책을 교환할 수 있는 특정한 날짜나 주를 정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독은 교실에서 먼저 시작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읽는 것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 점진적으로 숙제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얼마나 많이 읽어야 할까? 얼마만큼의 독서량이 필요한가?

학교는 전형적으로 한 주에 한 권 정도의 독서를 권장하고 있는데 아래의 공식을 이해하면 얼마나 많은 양을 읽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독 수업 개수 × 교실 당 학생 수 × 학생 당 제공되는 책의 권수 = 필요한 책의 수

예를 들면 4개의 다독 교실에 30명의 학생들이 3권씩 책을 골라 읽는 학교라면 필요로 한 책의 수는 약 360권입니다. 교실 단위의 책 세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이 학교의 총 12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분실되거나 손상되는 책을 고려해 400-600권 정도의 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 도서관의 책은 평균 학생들의 읽기 수준을 고려하여 준비하되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책과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책도 골고루 갖추어 모든 학생들이 볼수 있게 합니다. 자금이 여의치 않는 경우라도 한 학생이 한 권씩 읽는다고 가정하고 일단은 작은 규모로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초기에는 자금의 80%정도 사용하고 상황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알고 난 후에 나머지 자금을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단계 : 이제 본격적으로 도서관을 만들어보자! -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다독 도서관의 사용 방법을 익혀야 하고 구체적인 도서 대출, 반납 체계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책 고르기

흥미롭고 다양한 책들을 선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만족시켜 주는 일과도 같습니다. 매년 본 협회는 언어학습자 문학상(Language Learner Literature Awards)을 개최해 한 해의 최고의 수준별 도서를 선정합니다. 수상 목록은 본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erfoundation.org; www.keera.or.kr).

학교 도서관이 갖춰야 할 다섯 가지 항목들

1. 소설과 비소설 모두를 포함한 단계별 도서가 확보 되어야 한다.
2. 도서는 로맨스, 추리물, 드라마와 공포물 등 다양한 장르와 주제가 있어야 한다.
3. 다양한 읽기 레벨의 책을 골고루 갖추어 학교 전학생의 읽기수준에 맞추어 줄 수 있도록 한다.
4.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후에도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책들이 있어야 한다.
5. 교실 단위의 읽기를 위해서는 인기 도서들을 세트로 소장하고 있어야 한다.

도서 보관 장소의 네 가지 예

- | | |
|---------------|---|
| 1. 도서관 | 최적의 장소. 도서 대출과 반납의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학교가 도서관 운영을 위해 사서와 운영진을 갖추기 위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
| 2. 책꽂이 | 교실 내부나 교무실, 다독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한 교실에 책꽂이를 두고 책을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 3. 도서 카트 | 수레에 실린 책들은 이동이 용이하다. |
| 4. 책상자 혹은 책가방 | 몇몇 교실이 같은 책을 공유한다면 몇 개의 상자나 가방에 책들을 분리해 담고 매주 다른 책들로 다른 교실과 교환해 가며 읽는 방법도 있다. |

만일 교실에서 함께 읽을 동일한 도서세트가 있다면 도서관에 보관하는 것 보다는 교무실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가 수업시간에 사용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먼저 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서 목록 만들기

수준별 도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은 다양한 수준 측정 방식으로 책을 분류하므로 교사는 만드시 자신만의 수준 구별 방안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초급부터 고급까지 6-8개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좋은데 본 가이드북은 다양한 출판사들의 도서들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색깔 테이프나 라벨지를 책 모서리에 붙여 색깔별로 도서를 구분하는 단순한 방법이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 1단계의 도서들은 모두 노란색, 2단계는 파란색 테이프를 붙이는 식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도서관 정리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도서를 빨리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대출 카드는 있다면 좋겠지만 만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책 표지 앞에 고유 번호를 달아서 각각의 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G-025라는 고유번호는 Green 단계의 25번 책을, 고유번호 3-067은 3단계의 67번 책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도서 대출 시스템 조직하기

개방형 시스템부터 매우 조직적인 시스템까지, 도서 대출 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을 가집니다. 개방형 시스템의 경우 학

생들이 대어 장소와 대출 일자를 규정하지 않는데 이는 많은 도서의 분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시스템이 보통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매주 정해진 시간에만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두 표를 통해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 사례에서, 교사는 전체 교실에 대한 한 장의 종이만 준비하면 됩니다. 각 학생들은 빌린 책의 코드를 자신의 이름과 날짜와 함께 기입하고, 반납 시 교사는 종이에 적힌 내용에 줄을 그어 확인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교사가 학생들이 읽은 책과 단계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집니다. 아래 표를 보면 6월 7일 현재, 고희진 학생은 빌린 책을 모두 반납하였고, 오미란 학생은 Y-072 책을 아직 읽고 있으며, 안주희 학생은 지난 주 책을 대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이름	5월 23일	5월 30일	6월 7일	6월 14일	
고희찬	Y-012	Y-167	G-024		
안주희	P-034	X	G-024		
오미란	Y072	Y052	G-024		

2번 사례는 교사가 각 학생을 위해 각각 한 장의 용지를 구비한 포트폴리오 형식을 나타냅니다. 이 방식을 통해 학생이 읽은 도서의 페이지와 단계의 이동까지 추적이 가능하며 학생 개인은 책에 대한 느낌을 간단히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름 : 김아라 / 학생번호 : 12345 / 학급 : _____

책제목	도서번호	대출일	반납일	읽은 책 쪽수	느낌이나 감상
쿵푸키드	G-084	4월 13일	4월 20일	16	재미있게 읽어오나, 쉬운 편임
숨바꼭질	G-145	4월 20일	4월 27일	24	흥미롭고 재미 있음
빨강머리앤	B-023	4월 27일			

3단계 : 다독을 소개하자! - “한결음씩, 한결음씩!”

다독 프로그램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교사의 프로그램 소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너무나 바쁘게 지내고 있고 읽기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 읽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어 다독을 시작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음에서 다독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교실에서 학급단위로 읽기를 시작하고, 후에 학생 스스로 도서를 선택하여 읽는 것입니다. 이는 단번에 학생들을 프로그램에 빠져 들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기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1. 학급 단위로 읽기 시작하라.

학급 전체가 함께 읽기를 시작하면 장문 독해에 대한 대략적인 아이디어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교사는 실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도 읽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쉬운 교재를 선정해야만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진행하려면 교사는 같은 책을 대량 복사하거나 적어도 두 학생 당 한 권의 책은 배당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쉽고 즐겁게, 그리고 빠르게 읽는 것에 있으며 추후에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독서 활동과 다독 활동을 대조해줘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읽기 첫째 날〉

- ① 도서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주요 내용이나 특징들을 알려주면서 학생들이 책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학생들은 미리 정해진 한 챕터 정도의 분량을 묵독하고 다 읽은 후 교사에게 도서를 돌려준다. 또는 오디오로 녹음된 책 내용을 들려주는 것도 좋다.
- ③ 다음의 질문을 칠판에 쓴다. (모국어로 써도 무방함.) -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일

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 ④ 학생들이 각자의 짝과 ③번의 질문에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한 후 교사와 함께 정답을 맞춰본다.

〈읽기 둘째 날〉

- ⑤ 전날 읽은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이어질 내용을 직접 추측할 수 있게 한다.
⑥ 몇 페이지 더 함께 읽고 읽은 내용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

〈읽기 셋째 날〉

- ⑦ 위의 과정을 한 권의 책이 끝날 때까지 지속한다.
⑧ 학생들에게 읽은 도서에 대한 느낌 및 교과서의 지문들과 다독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질문한다.
⑨ 다독의 목적이 영어 학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읽기 자체를 연습해 속독 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쉬운 책을 선정하기 때문에 학생들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준다. 내용이 너무 쉽더라도 이러한 도서를 읽는 것 자체가 연습이며 학습의 과정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위 단계를 학생들이 쉬운 읽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할 때까지 다른 도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2. 학생 스스로 도서를 선택해 읽게 하라.

학급 단위의 읽기에 학생들이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서 읽는 방법을 알려줄 때입니다.

〈하나-오리엔테이션〉

교사가 학생들에게 왜 이러한 읽기의 방법이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교과서와 다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하고 다독을 즐겁고 재미있게 해야만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더 실용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전달합니다.

〈둘-첫 번째 책 고르기〉

도서관에서 가져온 가장 쉬운 책들을 책상에 나열해 학생들이 훑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지만 반드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책 목록 시스템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계가 분류된 방식과 책들의 일련번호 시스템, 도서 대출 반납 체계와 자신에게 맞는 단계의 도서를 고르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골랐다면 10-15분 정도 교사의 관찰 하에 조용히 독서하도록 합니다. 교사는 이때, 책에 대한 느낌이나 체감 난이도를 독서중인 학생들에게 묻고 만약 책 선정을 잘못 한 학생이 있다면 도서를 바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학생들이 고른 책을 대출하게 하고, 매 수업시간마다 가져오게 해서 수업 시작 또는 마무리 시간에 읽을 시간을 주면 됩니다.

〈셋-교실 밖에서의 읽기〉

학생들이 교실에서 책 읽기 시간을 몇 번 가지고 나면 교실 밖에서도 독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초반에는 교실이 아닌 곳에서 매주 하루에 20분 정도만 읽을 수 있도록 장려하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이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을 수준에 이를 때 까지 한 학기 또는 일 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기 시간을 늘리도록 합니다.

한 권의 책을 끝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토론해보거나 읽기 활동을 해야 합니다(11-13쪽 참조).
- 책은 반납대에 반납하며, 또 다른 책을 선택 후 읽습니다.
- 교사가 반납한 책을 제자리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학생 본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다독의 평가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시험이나 퀴즈를 통해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읽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의무감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다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책을 읽고 있다는 점만 확실하다면 이해도에 대한 평가는 사실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책을 읽기 전에 본인들이 선택한 대부분의 도서가 이해하기 쉽고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확신을 도서 선택 과정 속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독은 평가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읽기 유창성과 속독 능력을 길러 학생들이 영어 읽기에 보다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육 기관이 공식적인 읽기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독의 평가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준별 도서의 온라인 평가

교사는 학생들이 실제로 책을 읽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각 학생들에게 평가지를 나눠주며 읽기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 모든 학생이 다른 책을 읽은 경우에는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협회의 웹사이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평가들을 보유하고 있고 교사가 직접 본인의 수업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로그인 및 비밀번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로그인을 하고 본인이 읽은 책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아 성공/실패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읽기 상태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elfoundation.org/assessment/html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접적 평가

1. 독후감, 내용요약하기, 포스터 만들기, 읽은 내용 발표하기

학생들은 직접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하거나 포스터를 만들고 또는 책 내용을 요약해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전개 방식, 또는 느낀 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학생은 문장 채우기 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이다. 왜냐하면 _____하기 때문이다. 또는, 나는 이 책을 좋아한다./싫어한다. 왜냐하면 _____때문이다.) 영어로 쓰는 것이 좋지만 할 수 없는 수준의 학생이라면 한국어를 써도 무방합니다.

2. 점수 주기

읽은 페이지 수만큼이나 독서를 통해 이해한 어휘의 수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스스로 성장시킨 도서 단계의 수, 독후감 작성, 또는 다독 이후의 다양한 활동 참여도 등의 요소들도 효과적인 점수주기 방식입니다.

3. 속도 측정하기

과정 초반에, 3분간 본인의 수준에 맞는 책을 읽도록 하십시오. 그런 후에 학생들이 읽은 단어의 개수를 세어 1분간 읽은 단어의 수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읽기 과정 중반부와 후반부, 또는 필요하다면 매주 반복하시면 학생들의 성장 과정이 기록될 것입니다.

4. 비공식적 관찰

매 주 학생들이 스스로 읽는 동안 교사는 학생들을 관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들을 관찰 할 때는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십시오.

- 책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인가? 지루해 하거나 흥미가 없어 보이지는 않는가?
- 재미있는 내용을 읽을 때 웃는가? 긴장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 책 읽기를 즐기는가? 혹시 자는 척 하고 있지는 않은가?
- 페이지를 자주 넘기는가? 천천히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 읽은 내용을 자주 반복해서 읽고 있는가? 사진은 많이 사용하는가?

5. 이해도 확인 구술질문

다음의 질문으로 학생의 도서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읽은 내용을 영어로 다시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어렵다면 한국어도 해도 무방하다.
- 이야기에 대해 싫은 점과 좋은 점을 자유롭게 말하면서 느낀 바를 표현할 수 있는가?
- 핵심 내용이 담긴 부분을 찾아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을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는가?
- 중심내용과 주인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페이지 별로 일어난 일에 대해 이해하는가?
- 결말이 어떻게 끝났으며 본인이 내린 결론을 물어라. 읽은 책의 장르는 알고 있는가?
- 교사가 질문을 할 때 답을 찾으려는 듯이 책 내용을 뒤적이는가?

다독에 대한 Q & A

다음은 다독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대답을 나열한 것입니다.

Q1. 학생들이 읽기를 하는 동안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교사가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학습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는 그들이 읽고 있는 책의 수준이 적절한지, 읽기를 즐기고 있는지 등에 대해 조용히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또는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영어 도서를 읽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Q2. 학생들은 왜 독서를 잘 하지 않는 것일까요?

-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로 독서를 꺼려합니다.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① 책이 너무 어렵거나 재미가 없다.
 - ② 숙제나 학원 때문에 너무 바쁘다.
 - ③ 읽기가 싫다. (독서보다는 차라리 녹음내용을 듣는 편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다.)
 - ④ 읽기는 스스로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강제성을 띠는 학습이라는 편견이 있다.
 - ⑤ 교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읽다가도 중도에 포기한다.
 - ⑥ 뚜렷한 동기가 없다.

Q3. 얼마만큼의 양을 읽어야 하나요?

-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한 주에 수준에 맞는 책 한 권 이상 정도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Q4. 이미 할 일이 너무나 많은 학생들과 교육과정에도 없는 다독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 학교 정규 교과과정 속에 다독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 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연습해 볼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해 속독능력을 기르기 힘들다.
 - ② 교과서에 나온 문법과 어휘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언어적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다.
 - ③ 외국어로 된 내용을 문제없이 읽어내려 갈 수 있다는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 그러므로 우선 많은 학교들이 정규 교과과정에 다독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Q5. 중요한 시험(중간, 기말고사 및 수능 등)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다독 활동을 지도할 수 있나요?

- 토플이나 토익 또는 수능 같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유창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빠르게 읽되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짧은 지문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계속 반복하는 방식은 읽기의 유창성을 기르는 충분한 연습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독 방식의 학습과 기존의 문제 풀이식 학습에 참여한 각각의 실험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독을 한 학생들의 시험점수가 더 높게 나왔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Q6.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도 읽기를 멈추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일 학생들이 충분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읽기를 즐기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책이 어려워 재미와 흥미를 잃게 만들 때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읽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Q7. 아이들에게 읽도록 종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읽게 해야 하나요?

- 자발적 읽기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학생들이 비록 읽기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바쁘다는 이유로 읽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읽기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면서 독서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Q8. 독서는 언제 해야 하나요?

-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못 다한 읽기는 취침 전이나 등하교 시간 등 자유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Q9. 수준별 도서는 언제부터 읽기 시작하면 되나요?

- 본격적으로 수준별 도서를 다루기 전에 알파벳을 비롯한 기초 단어와 문법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단계의 수준별 도서는 다독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매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단어가 발음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영어의 큰 특징 중 하나이므로 발음 학습의 선행도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10. 독서할 때 사전은 사용해도 되나요?

- 읽기 속도와 유창성을 기르기 위한 독서는 쉽고 재미있는 도서로 이뤄져야 합니다. 모르는 단어 때문에 사전을 너무 자주 찾아보는 것은 수준에 맞지 않는 독서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보다 쉬운 도서를 선택해 읽어야 합니다.

Q11. 책을 소리 내서 읽어야 하나요?

- 교사들은 가끔씩 철자와 발음의 차이 또는 일치를 확인하거나 발음 연습을 시키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소리 내 읽게 하고 또는 녹음테이프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읽는 속도는 듣는 속도와 말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들으면서 읽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수업 일부 시간을 내어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발음을 걱정하며 수업 시간에 크게 소리 내서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소리 내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까지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읽기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생기므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Q12. 학생들이 읽은 내용을 모국어로 해석하게 해도 될까요?

- 다독의 핵심은 학생들이 빨리 읽으면서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영어 내용을 바로 바로 머릿속에서 처리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읽은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번역해보라고 시키는 일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언어 발달의 과정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다소 어려운 부분에서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때때로 모국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Q13. 읽기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준별 도서만 읽어야 하나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문제없이 빠르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면 어떤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읽기 유창성이 수준별 도서와 원서를 같이 읽은 쪽 보다 수준별 도서를 읽는 것에서 더 효과적으로 획득된다고 밝혀졌는데, 늘 성공적인 속독 훈련 과정은 다독과 함께 수반되는 유용한 학습 방법입니다.

Q14. 책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 인기가 많은 책들은 분실되기 쉽기 때문에 재미있는 책들은 미리 선별해 여러 권의 복사본을 준비해 두십시오. 하지만 책이 분실되었다고 해서 학생들이 흠쳐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반납시기를 놓쳤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솔직히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학교 게시판이나 잘 보이는 곳에 빌린 책들의 반납 방법과 시기를 공지해 책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Q15. 학부모님들도 독서에 참여해야 하나요?

- 도서를 집으로 가져가서 읽게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학교가 자녀의 교육에 일의를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부모님과 함께 독서를 하라고 장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들과 자기 전이나 식사 후에 책을 읽으며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읽기 습관을 다시 강화시켜 줍니다. 어떤 학교는 부모에게 퀴즈가 담긴 문제를 제공해 직접 학생들이 읽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학교와

가정 사이의 훌륭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16.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읽기에 흥미를 계속 갖도록 할 수 있을까요?

- 동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적인 독서습관이 오래도록 유지 됩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해 보십시오.
- ① 각각의 학생들에게 서로의 읽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독서 파트너를 만들어 준다.
- ② 가장 많은 책을 읽은 학생, 독후감을 가장 잘 쓴 학생, 읽기 속도가 가장 빠른 학생 등 여러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한다.
- ③ 도서관에서 비치 될 책들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도서관의 대출 반납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해본다.
- ④ 도서관을 꾸미는 법이나 책들의 배치 방식 등을 함께 고민한다.
- ⑤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 가운데 최고의 도서 10권을 뽑는 행사를 진행하고 학생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게 한다.

확장 듣기 (Extensive Listening) - 영상 및 듣기 자료의 활용

확장 듣기는 다독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읽기의 유창성이 증진될 수 있듯이 듣기의 유창성 또한 확장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확장 듣기는 단어를 귀로 듣고 바로 바로 이해하게 하면서 언어 감각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교사의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거의 모든 수준별 도서가 오디오 자료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책을 살 때 오디오 CD를 같이 구매하거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출판사의 경우는 영상자료가 포함된 도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읽는 동시에 듣기 자료를 사용하여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를 재미있어 합니다. 또한 듣기 자료는 소리 패턴이나 억양 및 발음에 대한 모델을 제공해주므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은 책에 오디오 CD를 함께 두고 사용하는데, 학생들은 이를 사용하여 읽기, 듣기, 읽는 동시에 듣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이를 응용해본다면, 먼저 책을 읽은 다음 오디오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먼저 듣고 나중에 읽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알아야 할 점은 읽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듣기 능력 또한 동일하게 우수하지는 않다는 것인데, 한 연구에서 밝히기를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 듣기를 위한 어휘 보유량이 읽기를 할 때 이용되는 어휘 보다 절반 또는 4분의 1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듣기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학생 본인의 읽기 수준보다 한 두 단계 낮은 내용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적정 듣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사는 다양한 수준의 책 내용을 녹음한 여러 개의 듣기 내용을 수업시간에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차례로 하나씩 들려주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단계가 어디인지를 스스로 적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최근의 CD플레이어나 MP3 같은 첨단 기기들은 녹음내용의 속도를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고 온라인에는 교사들이 무료로 사용 가능한 무수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듣기 속도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편집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고유한 듣기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준별 도서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듣기 자료에 대한 몇 가지 제안

- 매일 또는 매주 몇 페이지 씩 들려주면서 듣기를 하나의 연속물로 접근시키자.
- 희곡형식의 수준별 도서는 직접 들려주거나 학생들이 직접 연기도 할 수 있게 하므로 참고하자.
- 학생들이 전체 내용을 다 읽고 난 후, 한 번에 전체 내용을 다 들려준다. 이 시점에서 듣기의 유창성이 확장된다. 책을 다 이해하고 쉽 없이 전체 듣기를 할 때는 삽화나, 사진 또는 책을 뒤적이면서 듣게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 발음 연습에 있어서는 담화형식이 들어있는 책 내용 중 일부를 골라 오디오를 틀어주고 한 문장씩 끊어서 학생들이 따라 읽도록 한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되 개인별로 연습시키기 보다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책에 등장하는 인상적인 사진이나 삽화를 복사해서 나눠주고 듣기를 들려주는 동안 순서를 배열하도록 시키자.

- 처음에 들을 때는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방식으로 흐름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하고 다시 들을 때 나무를 바라보며 부분 부분을 자세히 이해하며 듣는데 집중하게 한다.
-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쪽은 듣기만 하고 한 쪽은 읽기만 하게 한다. 이로써 서로의 이해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 교사는 부분적으로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어주면서 일부러 틀리게 읽는다. 그래서 학생들이 읽거나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도록 한다.

다독과 프로그램의 진행

1. 첫 번째 수업 날

학생들의 읽기 습관이나 그동안의 학습 상황에 대해 파악합니다. 어떤 책을 읽는지, 모국어와 외국어로 된 책을 읽는 것이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지 알아야 하므로 학생들이 읽고 있는 모국어로 된 책 한 권과 영어로 된 책 한 권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또한 읽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함께 토의하도록 합니다.

빨리 읽는 것과 천천히 읽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 / 모든 내용을 이해하며 읽어야 하는가? / 사전은 사용해도 되는가? / 가장 읽기 좋은 장소는 어디인가? / 읽을 책을 누가 정해야 하는가?

2. 책 선정하기와 읽기

책이나 안내문 또는 용어집 등의 특징을 알려주고 책상에 책들을 많이 올려놓으십시오.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재미있어 보이는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책을 찾을 수 있도록 퀴즈를 만드십시오.

5개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책은 어느 것 일까요? / Maria와 Felix가 나오는 로맨스 소설은 어떤 책일까요? / David Andrew가 쓴 책은 어떤 것 인가요?

그런 후 책에 등장하는 여러 삽화를 복사해서 학생들이 어떤 책에서 나온 그림인지 맞추고 그 이유를 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 제목과 표지를 보고 이야기를 예측하고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또는 어떤 주인공들이 등장하는지도 유추해보도록 합니다. 책 표지와 안내 글을 읽고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 질문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만든 질문의 답을 궁금해 하면서 흥미롭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가장 좋아하는 책에 대해 토의하는 코너를 만들면 책 선정이 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책은 표지에 “최고의 책”을 나타내는 스티커나 라벨지로 특별히 표기해두면 좋습니다.

3. 학생들을 참여시 키기

학생들이 자신들의 도서를 장르별로 분류하고 책 표지 안에 이름 표기하게 하고 각 출판사의 카탈로그에서 새로운 책들을 찾는 과정에 그들을 참여시키십시오. 학생들이 직접 지역 도서관에 가서 추천목록을 받아오게 하며 그들에게 도서관 모니터 요원의 자격을 주십시오.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 정리 등을 함께 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책을 구매한 경우에는 책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 축제에서 물품을 팔거나 독서마라톤 대회를 여는 것으로 도서관 기금 마련에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읽고 있는 책의 수준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책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사가 다시 적절한 도서를 선정해줍니다. 또한 학생들이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하게 해서 독후감과 책 추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 속에는 학생들이 책의 재미와 난이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작은 카드를 끼워 넣어 점수를 기입하는 것으로 한 학기에 10개의 최고 도서를 뽑습니다.

교내에 특별한 읽기 공간을 만들 때나 도서 시리즈를 장르 별로 전시하는 과정에 학생들을 함께 참여키는 방법도 좋습니다. 학교 축제나 행사에 독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 정해진 시간에 가장 많은 책을 읽은 학생을 우승자로 뽑고 책의

분량과 난이도는 책 표지에 “3km”, 또는 “5km”로 표기합니다. 학생들은 마라톤의 실제 거리 만큼인 약 42km에 해당하는 양의 도서를 읽어야 하고 읽은 도서 한 권이나 1000자 단위로 후원자로부터 기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교내의 북클럽이나 독서 코너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4. 읽기 유창성 기르기

읽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읽되, 속도를 10% 더 높여서 읽게 합니다. 읽을 때는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 안에 정해진 양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며 파트너와 정해진 분량을 두고 경쟁시키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읽을 때는 처음 읽었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 기록하게 합니다.

5. 전 학급이 모두 같은 도서 읽기

책이 영화로 만들어진 유명한 도서일 경우는 읽기 전에 해당 영화의 일부나 예고편을 먼저 보여 줍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이미 익숙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작가나 주인공 등을 질문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도서로는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 제인 에어, 찰스 디킨스, 정글북 등이 있습니다. 전 학급이 같은 도서를 읽게 되므로 학생 별로 주어지는 과업은 어려운 단어나 구를 찾고, 등장인물과 전개과정의 정리, 문화적 요소 찾기 등 모두 달라야 합니다.

읽은 내용으로 스무고개 놀이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는 한 학생이 책에서 나온 인물이나 장소를 생각하고 “Yes or No”로 만 질문에 대답해 상대방이 답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인데 질문은 10개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챕터를 다 읽고 난 후에는 교사가 OX퀴즈 형식으로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힌 팀이 우승을 하는 코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고른 책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역할극을 연습해 교실에서 서로의 공연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기를 할 때는 극중 인물에 감정이입을 해서 극 중 상황과 일치 하도록 해야 하므로 감정 표현 연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역할극 도중에 중요한 순간에는 교사가 개입해 잠깐 멈추게 하고 이 때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고찰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각 등장인물들을 위한 보상, 처벌, 음식, 옷, 주거지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토론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읽을 때, 짧은 챕터나 부분을 골라 읽다가 잠시 중단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 묻고 중요한 대사를 보여주면서 누구의 대사인지 맞히게 합니다.

다 읽고 나서는 책 표지와 제목, 책 속의 그림들이 적절했는지 토론허게 하고 내용을 요약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요약한 내용을 여러 개의 문장들을 나누고 순서를 재배열하게 합니다. 읽은 책이 소설이 아닌 수필이라면 책에서 등장한 사람들, 도시, 회사 등의 공간적 배경을 실제로 찾아보게 합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책이라면 영화를 보여주고 영화와 소설의 차이점을 질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각 챕터의 제목을 복사해 순서를 맞추게 하거나 챕터 제목만 보고 읽은 내용을 말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또는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다양한 형용사들을 칠판에 나열하고 누구의 특징인지 질문하거나 결말 이후 전개될 이야기를 예측해 속편을 써보게 하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소설의 경우, 학생들이 각자 기자와 소설 속 범죄자로 분해 인터뷰를 하거나 사건의 순서를 정리해보는 것도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에 나온 중요 정보를 차트나 표로 만들어 정리하거나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다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의 핵심 상황에서 본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상황을 분석하게 하고 각 인물의 프로필을 만들어 볼 수 도 있습니다.

Musical chair 게임도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둥근 대형으로 서서 가운데 의자 하나를 준비해 다 같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추면 의자에 한 학생만 앉게 되는데 이 때 다른 학생이 가운데로 와서 앉아 있는 학생에게 읽은 책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끝말잇기처럼 학생들이 차례대로 한 명당 한 문장씩 이어서 읽은 내용을 다시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공유하기

- 4분 안에 읽은 내용을 말하고, 다음 학생은 3분 안에, 세 번째 학생은 2분 안에 말해야 합니다.
- 재미있는 포스터를 붙이고 독후감을 전시하는 것 등으로 흥미로운 도서관을 만드십시오.

- 도서관을 둘러보게 하고 한 학기에 읽을 도서목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함께 공유합니다.
- 책에 차트를 만들어 누가 현재 얼마만큼 읽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합니다.
- 매주 또는 학기 마다 읽은 내용 전반에 대한 독서기입장을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해봅니다.
- 책의 내용이 자신의 현실적 상황에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를 말하도록 합니다.
- 자신만의 단어로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 발표하게 하고 발표자에게 두 개 이상의 질문을 하게합니다.
- 같은 내용의 책이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발간될 때 어떤 점이 다르고 같은지 비교하게 합니다.
- 읽기 과정 말에는 읽은 도서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봅니다.

7. 쓰기

- 결말을 다르게 쓰는 활동을 하거나 내용 일부를 영화 시나리오처럼 각색해봅니다.
- 등장인물의 일기처럼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 이야기나 등장인물에 대한 짧은 시를 씁니다.
- 책에 나온 장소들의 지도를 만들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합니다.
- 책 속의 등장인물들을 비교해보고 각 캐릭터들 간의 차이와 유사점을 비교해봅니다.
-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지를 만들어봅니다.
-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그 사람과 보내는 가상의 하루에 대해 씁니다.
- 등장인물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씁니다.
- 등장인물의 강점과 약점 또는 습관과 배경을 설명하는 인물위주의 정리 글을 씁니다.
- 특정한 장면의 그림을 그려보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씁니다. 단, 책에 나온 삽화를 그대로 그려서는 안됩니다.
-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한 사건 당 한 줄 씩 써도 무방하며 작성한 요약 내용을 다시 분리해서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재배열하게 합니다.
- 출판사나 작가에게 학생들이 읽고 느낀 점을 편지로 써보게 합니다.

다독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

도서와 참고 문헌

- Bell, T. 1998, Extensive reading: Why and how?, The Internet TESL Journal 4(12).
- Carroll, G. R. 1972, The battle for better reading. In H. B. Allen and R. N. Campbell (Ed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 book of readings (2nd ed.), McGraw-Hill.
- Day, R. and J. Bamford, 1998, Extensive Reading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y, R. and J. Bamford, 2004, Extensive Reading Activities for Teaching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ll, D. R. and H. R. Thomas, 1988, Graded readers (Survey review), ELT Journal 42.
- Krashen, S. D. 1993, The case for free volunteer reading,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0(1).
- Lunzer, E. and K. Gardner, 1979, The effective use of reading, Heinemann.
- Renandya, W. A. and G. M. Jacobs, 2002, Extensive reading: Why aren't we all doing it? In J. C. Richards and W. A. Renandya (Eds.),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An anthology of current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ing, R. The inescapable case for Extensive Reading.
- West, M. 1936, The new method readers for teaching English reading to foreign children, Longman.
- [http://www.robwaring.org/papers/waring Nova 2011.pdf](http://www.robwaring.org/papers/waring%20Nova%202011.pdf)
- 손영희, 2004, 영어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웹 페이지의 전략적인 활용,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웹사이트

- The Extensive Reading Foundation: www.erfoundation.org
- The Extensive Reading Pages: www.extensivereading.net
- The Extensive Reading discussion List: groups.yahoo.com/group/extensivereading/
- ER Moodlereader: www.moodlereader.org
- The Japan ER Association: www.seg.co.jp/era/
- The Korean English Extensive Reading Association: www.keera.or.kr
- The Extensive Reading Bibliography: www.erfoundation.org/erf/bibliography/
- Rob Waring's ER website: www.robwaring.org/er
- SSS Reading Levels and World Counts: www.seg.co.jp/ssr/reading_level/A/index.shtml

Beginner Elementary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anced

[illegible]

A more detailed table including series from other publishers can be found on the Extensive Reading Foundation website (www.ERFoundation.org) © The Extensive Reading Foundation 20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English Readers
Cambridge Discovery Readers

Cengage Learning
Foundations Reading Library
Page Turners Reading Library

Compass media
Young Classic Learners
Compass Classic readers
E-Future
Comic Readers
Fun Phonics Readers

Macmillan
English Explorers
Macmillan Reader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Bookworms
Oxford Read and Discover

Penguin
Penguin Kids
Penguin Readers

This guide is supported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www.cambridge.org/elt/cambridgereaders



HEINLE
CENGAGE Learning™

elt.heinle.com



www.e-future.co.kr



www.compasspub.com



www.macmillanreaders.com

OXFORD
UNIVERSITY PRESS

www.oxford.co.kr/gradedreaders

PEARSON

www.penguinreaders.com



The Korean English Extensive Reading Association
www.keera.or.kr

An associate of the Extensive Reading Foundation

www.erfoundation.org



© KEERA / The Extensive Reading Foundation 2012